

TMTC 과제 독후감 2

도서명: 선교 매트릭스, 이영 저 | 줄은땅 | 2021년 01월 01일

제출자: 황형준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성 또한 선교적 본질에 초점을 둔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둔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사고를 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선교적 교회의 선교 방식은 성육신적이다.

필드 리서치 훈련은 단기 선교 여행의 방법 중 하나이다. 기존의 단기 선교 여행은 사역 또는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언가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 주일 학교 성경 캠프나 공연을 열거나 의료나 미용 혹은 건축을 통한 봉사를 한다. 길거리에서 나가 전도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무언가 베풀고 주고 행하는 것이 아닌 현지인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필드 리서치 훈련이다. 현지인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문화와 사회 환경과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울 때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선교지의 도시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선교지와 그 사람들을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드 리서치 훈련이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둘째 양적 중심의 선교에서 질적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선교의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란 하나님께서 남은 자 즉 연약한 자, 숨어 있는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남은 자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다. 결국 결국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극복할 방법은 우리 각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큰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교회들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가 다시 선교에 대한 의식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약함의 선교는 무엇인가? 1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겸손으로 섬김의 사용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약함의 선교의 근본이다. 2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약함의 선교를 실천하셨다. 3 약함의 선교는 수치와 고통과 실패를 동반하는 선교이다. 4 약함의 선교 정신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5 약함의 선교 대상의 우선은 약한 사람들이다. 6 약함의 선교 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과 섬김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현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현지인을 대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직접 후원 요청이나 후원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 편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기도 편지 안에는 후원 계좌번호를 쓰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선교사는 후원자들이 기도 편지를 읽고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후원 계좌를 가르쳐준다. 이런 방식을 믿음 선교라고 명한다. 폴링 시스템은 모든 선교사가 후원금을 하나로 합하여 각자의 모금액과 상관없이 생활비를 똑같이 나누어 쓰는 제도이다. 믿음 선교를 선택한 선교사들은 후원금을 다른 선교사 들과 함께 나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오늘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선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른 많은 방법이 있고, 인간의 실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길이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 방법은 성육신이였다. 2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3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 4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선교사들이 배워 이것이 선교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행할 때 열매 맺는 선교가 될 것이다.

신생 교회들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자전, 자립, 자치이다. 이 세 가지의 현대 선교의 새로운 이슈가 되는 자신학화를 포함하여 선교의 4가지 원칙으로 부른다. 자신학화란 선교지 교회들이 스스로 신약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 학화는 신학의 상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신학은 인간 활동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인간 활동에게 상황에 제한된다. 즉 모든 신학은 그 신학이 형성되고 구축되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은 상황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신적 성격으로 인해 신학은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황화의 개념은 원래 자유주의 진영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의 상황화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고 나아가서 상황들을 보다 성경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자신학화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자신학화의 경험이 적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자 신학화를 돕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